성신여대, 대학구조개혁 TF 가동

교수·학생·직원 학과통폐합 논의

20여 명 구성, 정기회의 진행
교직원 임금·장학금 축소 등
적자 폭 막기 위해 각 분야별
균형 재정 마련 방안도 검토

성신여대가 학과 통폐합을 포함한 대학구조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교수, 학생, 직원, 동문 등 대학 구성원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대학구조개혁 TF는 단과대학별 교수, 학생, 교직원, 동문 등 20여명으로 구성됐으며 정기 회의를 열어 네 주체가 모두 수긍할 만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학교 측이 학과 통폐합 계획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면 해당 학과 학생들이 반발하며 갈등을 빚던 다른 대학들과 달리 구성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17일 성신여대에 따르면 이 대학이 학과 통폐합과 행정조직 간소화 등 대학구조 개혁에 나선 이유는 매년 학생 숫자는 줄어드는데 등록금은 7년째 동결돼 적자 폭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성신여대 학생 수는 몇 년째 1만명을 밑돌고 있는데 서울 다른 주요 대학들의 상황과 비교했을 때 학생 수 대비 학과 수가 많다는 게 대학 측의 판단이다.

성신여대 전경

현재 성신여대는 서울 성북구 돈암동에 수정캠퍼스, 강북구 미아동에 운정캠퍼스 등 두 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13개 단과대학에 53개 학과, 5개 대학원이 있다. 성신여대가 대학알리미에 공지한 자료를 보면 재학생은 2016년 9천620명, 2017년 9천233명, 2018년 9천124명으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다.

TF는 학과 통폐합 외에도 교직원의 임금삭감, 장학금 규모 축소 등 다양한 균형재정 마련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은 특별한 수입원이 생기지 않는 이상 적자 폭이 더 커질 게 눈에 뻔하니 각자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취지다.

현재 성신여대 총학생회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중앙운영위원회 관계자는 "아직은 학생마다 의견이 분분해 총의를 모으지 못했지만, TF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물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신여대 관계자는 "돈 씀씀이를 줄이고, 학과를 통폐합하는 문제는 워낙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TF가 결론지을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집단지성으로 좋은 해결책을 찾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1936년 개교 이래 처음으로 학내 모든 구성원이 직접 뽑은 성신여대 양보경 총장은 지난 7월 취임식에서 "어떻게 하는 게 정의로운 것인지 숙고하며 대학을 운영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경청해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취준생 희망연봉 女 < 男

〈3100만원〉 〈3300만원〉

잡코리아 취준생 911명 대상 설문
희망연봉 수준 평균 3200만원
대기업·공기업·이공계열 높아

취업준비생의 희망연봉은 평균 3200만원으로 집계됐다. 희망연봉은 여성보다 남성 취준생이 높았고, 대기업과 공기업 취업준비생, 전공별로는 이공계열 전공자들의 희망연봉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취업 포털 잡코리아가 지난달 14일~24일 하반기 신입 취업준비생 911명을 대상으로 '희망연봉 수준'에 대해 조사한 결과 평균 32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남성 취업준비생의 희망연봉은 평균 3300만원으로 여성 취준생의 희망연봉 3100만원 보다 높았다.

취업 목표기업과 취준생들의 전공계열에 따라서도 희망연봉 수준이 달랐다.

대기업 취업을 목표로 하는 취준생의 희망연봉은 평균 36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공기업 취업이 목표인 취준생은 희망연봉이 평균 3300만원이었다.

이밖에 중견기업과 외국계기업 취업이 목표인 취준생들의 희망연봉은 평균 3200만원으로 같았다.

중소기업 취업이 목표인 취준생의 희망연봉은 2700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전공별로는 이공계열 전공자의 희망연봉이 평균 3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인문계열과 예체능계열 전공자의 희망연봉은 평균 3200만원으로 같았다.

경상계열과 사회과학계열, 자연계열 전공자의 희망연봉은 모두 평균 3100만원으로 같았다.

한편 올 하반기 신입직 취준생들은 가장 취업하고 싶은 기업으로 중견기업을 꼽았다. 조사결과 '중견기업에 취업하고 싶다'는 취준생이 28.9%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기업(22.7%)과 대기업(22.0%), 중소기업(20.9%) 순이었다.

/이범종 기자 joker@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공청회'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법률 제정에 관한 발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AI채용, 中企엔 먼 나라 이야기… 95% "도입 안한다"

인크루트 기업 297곳 대상 설문
인사담당자 72% AI 도입 반대
"개성 없이 구직자 획일화 우려"

중소기업의 94.5%는 직원 채용에 인공지능(AI) 도입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AI채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를 주제로 기업 297곳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중소기업의 94.5%가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올 하반기 AI 채용은 취업시장의 새로운 경향으로 떠올랐다. 이미 상반기 5개 계열사에서 AI 서류검증을 실시한 롯데그룹은 하반기 전 계열사에 이를 도입할 예정이다.

CJ그룹과 기아자동차는 하반기 첫 도입을 밝혔다. 국민은행은 면접에서 AI면접관이 장단점과 직무적합성을 평가할 예정이다.

반면 실제 AI채용을 도입했거나 도입의사가 있는 곳은 일부 대기업에만 국한됐다. 전체 기업의 81.5%는 AI에 대해 '도입의사가 없다'고 답했다. 이를 기업규모별로 교차분석한 결과 '이미 도입을 했거나 도입의사가 있는 기업'은 대기업의 경우 '33.4%', 중견기업은 '17.2%'였지만 중소기업은 '5.5%'에 불과했다.

AI 채용을 도입했거나 도입 예정인 18.5%를 대상으로 "어느 채용전형에 도입 혹은 도입예정이신가요?(복수선택)"라고 질문한 결과, 1위는 '서류전형'(39.0%)이었다. 2위는 '자기소개서'(29.2%), 3위는 '직무적성검사/인적성검사'(20.7%), 가장 도입이 적은 전형은 '(실무진)면접'(11.1%)으로 나타났다.

AI 채용 도입 찬반의견에서는 반대 비율이 높았다. 인사담당자의 27.8%만이 도입에 찬성 의견을 내비쳤다. 반대는 72.2%에 이르렀다. 반대의 가장 큰 이유는 '다양한 개성을 갖춘 구직자들을 하나의 잣대로만 평가하게 될 우려가 있다'(33.6%)가 차지했다. 공정성과 편의성을 위해 AI 채용을 도입하는 것이 오히려 구직자의 다양한 개성을 매몰시킬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다음으로 높은 응답률을 기록한 답변에는 '보여주기 식의 (채용)마케팅에 그칠 것'(24.8%), '대면을 통해서만 파악할 수 있는 지원자의 분위기나 인성 등을 정확히 평가하기 어려움'(16.8%) 등이 있었다.

서미영 인크루트 대표는 "채용이 사회적인 이슈로 거듭나고 기술발전을 더해 AI 채용이 등장해고, 이는 채용과정의 공정성과 편의성 증진에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아직은 대규모 채용과 이에 대한 여력이 있는 일부 대기업에 국한돼, 구직자는 각기 다른 기업별 채용 프로세스를 파악해 지원 기업에 알맞은 구직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범종 기자

인문계 80% "이공계가 취업 더 유리"

사람인 구직자 349명 대상 설문
이유 1위 "지원할 수 있는 기업 많아"

인문계열 전공자 상당수가 이공계 출신이 취업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인구직 플랫폼 사람인이 구직자 349명을 대상으로 '이공계와 인문계 전공자 체감 취업난'을 조사한 결과, 인문계 전공자의 78.6%가 '이공계열의 취업이 더 유리하다'고 답했다고 17일 밝혔다.

반면 이공계열 전공자들은 '비슷하다'(54.9%)고 느끼거나 '이공계열이 인문계열보다 유리하다'(38.9%)고 생각했다. '인문계가 유리하다'는 6.2%에 그쳤다.

인문계열 전공자들은 '상대적으로 이공계열의 채용규모가 더 커서'(59.2%, 복수응답) 취업에 불리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지원 할 수 있는 기업이 더 많아서'(49%), '직무 선택폭이 더 넓을 때'(44.9%), '앞으로 전망이 더 밝은 전공이라서'(34.7%)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들 중 77.5%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인문계열 취업이 더 어려워졌다고 생각했다. 그 이유로는 '상대적으로 인문계열 채용이 줄어서'(51%, 복수응답)가 1위를 차지했다.

또한 '4차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빅데이터와 같은 이공계열 인재의 수요가 더 많아져서'(46.2%), '기술력 중심의 경력직 채용이 더 많아져서'(42.8%), '산업구조가 첨단기술 중심으로 바뀌고 있어서'(29.7%), '이공계열 졸업자 우대가 더 많아져서'(24.1%) 순으로 답변했다.

스스로를 인문계보다 취업에 유리하다고 느낀 이공계 전공자들은 '이공계열의 채용규모가 더 커서'(44.4%, 복수응답)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다음으로 '직무 선택폭이 더 넓어서'(41.3%), '지원 할 수 있는 기업이 더 많아서'(31.7%), '앞으로 전망이 더 밝은 전공이라서'(22.2%) 순으로 답했다.

지난해 대비 취업이 더 어렵다고 느끼냐는 질문에는 인문계열 전공자보다는 20.7%포인트 적은 비율(56.8%)로 '취업이 더 어려워졌다'고 답했다. 40.7%는 '작년과 비슷하다'고 느끼고 있어서 체감 취업난의 온도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공계열 전공자들이 취업이 더 어려워졌다고 느끼는 이유는 인문계열 전공자들과 다르게 나타났다. 이들은 '주로 경력직 채용 위주로 바뀌어서'(40.2%, 복수응답), '제조업/건설 등의 이공계 채용이 많은 산업이 사양세라서'(39.1%), '절대적인 수치로 보면 이공계열 채용도 줄어든 것 같아서'(39.1%) 등을 취업난의 원인으로 꼽았다.

/이범종 기자

옥스퍼드 등 英 명문대 유학 준비한다면?

edm 유학센터 영국유학박람회

제14회 영국유학박람회에 옥스퍼드대학교 사이드경영대학원과 맨체스터 대학교 등 명문대가 대거 참가한다고 edm 유학센터가 17일 밝혔다.

edm유학센터가 주최하는 영국유학박람회는 10월 13일~14일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 3층에서 열린다. 누리집에서 사전 예약하면 당일 무료 입장할 수 있다.

옥스퍼드대학교 사이드 경영대학원은 Economist's Executive MBA 2위로 선정된 명문 MBA 다. MBA 1년제, MBA와 기타전공 석사 복수 프로그램 등 선택의 폭이 넓다고 센터 측은 설명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사이드경영대학원 입학 담당자가 참가해 입학 절차와 조건, 비용 등을 상담한다. 유학 생활에 대한 다양한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최고경영자과정(MBA) 공부하기'를 주제로 무료 세미나도 개최한다.

센터는 이밖에도 경영·미디어·공학·아트유학·디자인 등 유망 전공 부문 영국 대학교와 어학원 등 57개의 교육기관들로부터 학·석사와 어학연수, 아트&디자인 유학, 초중고 유학, 아이엘츠(IELTS) 등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범종 기자

제13회 영국유학박람회 현장 사진. /edm유학센터